뷔 동

140-39

계동140번지는 1929년 이후 개발된 도시한옥주거지로.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격자형 주거지위에 도시형한옥들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다. 1978 년 휘문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고, 그 자리에 1983년 현대건설사옥이 들어서고, 이 어서 1980년대 후반에 창덕궁 과 경복궁을 잇는 북촌길이 확 장 신설되면서 이 일대는 크 게 변화하게된다. 현재 북촌 길에 인접한 대부분의 한옥들 은 4-5층 높이의 근린생활시 설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개발 되었고, 그 사이에 한옥들이 몇 채 남아있을 뿐이다. 이 한 옥은 북촌길과 나란히 동서방 향으로 난 길에 면해있다.

건

대지면적: 41형

축면적: 21.4평

실 측:조 심,성태원

(2001.7.4)

 \bigcap^{N}

SCALE 1/400

304

고자형 안채와 L자형 사랑채가 튼고자형을 이루고있는데, 북쪽 길에 면해있는 안채의 모서리부분에 문간이 덧붙여 져있다. 원래 사랑채 앞으로 마당이 있었는데, 처마선 아 래까지 확장 변형되어 식당 홀로 사용되고 있다.

비등록 실측한옥





